

# KIA 불펜 재정비... 주말 삼성과 진검승부



박지훈 구위회복·송은범 두산전 열외·앤서니 힘 비축

원정 3연전, 선두권 진입·자존심 회복 '사자몰이' 나서

호랑이와 사자군단의 불펜 승부가 달구벌을 달군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대구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3연전에 돌입한다.

타격 상승세인 삼성과의 격차를 가시권으로 좁혀놓은 만큼 KIA에게는 선두권 재진입을 위한 중요한 승부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 칼을 간 일진이기도 하다.

KIA는 올 시즌 삼성과 6번 만나 단 1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지난 4월26일 홈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즌 첫 대결에서 윤성환의 커브에 쫓겨 0-6의 완봉패를 당했고, 3차전에서는 8회 불펜진의 난조 속에 대거 4실점을 하면서 1-4 역전패를 기록했다.

5월 원정 3연전에서는 내리 3연패를 당했다. 6차전에서도 서재응-윤석민에 이어 송은범까지 투입했지만 8회 4실점을 하며 역시 4-5로 역전패를 남겼다.

타선의 침묵과 불펜의 난조 속에 삼성에 자존심을 구겼던 KIA는 불펜 재정비를 끝내고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주말 휴식기를 보내면서 과부하에 걸렸던 불펜이 한숨을 돌렸다.

박지훈의 회복세도 KIA 불펜 전력을 재편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밸런스를 잃으면서 2군에서 봄을 보냈던 박지훈은 최근 경기에서 140km 후반대의 직구와 매서운 슬라이더를 던지며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시즌 스피리트로 재미를 봤던 박지

훈은 최근에는 슬라이더를 필살기로 쓰고 있다. 슬라이더 최고 구속은 140km를 찍었다.

선동열 감독이 "구위는 좋아졌지만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컨트롤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포크볼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합격점을 주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지훈은 "지난해보다 구속이 많이 늘었

다. 원래 대학 때 스피드가 나쁘지는 않았다. 148km까지 기록했는데 그 스피드가 지금 나오고 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앤서니도 휴식기를 보내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앤서니는 3개의 불펜 세트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지만 20차례 팀의 승리를 지키면서 세

이브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앤서니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것은 불펜의 불확실함. 허리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마땅치 않으면서 8회부터 등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보 마무리 앤서니에게는 이른 등판이 부담이 됐다.

선 감독은 선발-중간-마무리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마운드 구성을 위한 '송은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밸런스가 좋지 않은 송은범을 두산전에서 열외를 시키며 기초 다지기엔 공을 들었다.

불펜을 가다듬는 KIA와 오승환이 지키고 있는 삼성의 불펜 싸움이 주말 야구팬들의 눈길을 잡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순천효천고 투수 차명진〉



〈동국대 유격수 강민국〉

## 5년만에 부활한 프로야구 1차지명

### KIA 투수나 야수나 '행복한 고민'

7월1일 프로야구 1차 지명이 이뤄진다.

5년 만에 부활한 1차 지명 날짜가 다가오면서 KIA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이뤄진 KT의 우선 지명은 프로야구 팬들은 물론 KIA에게도 큰 관심사였다. 눈여겨 보고 있던 자원이 미리 빠져나가 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행히 KT가 좌완 투수 심재민(개성고)과 우완 유희운(천안북일고)을 낙점하면서 KIA는 투수나 야수나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다.

최후의 명단에는 순천 효천고 투수 차명진과 동국대 유격수 강민국이 올랐다.

우투우타의 차명진은 187cm의 장신으로 신체조건이 우선 눈에 띈다. 또 140km후반의 강속구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을 구사하면서 전국에서 손꼽는 고교야구 대어 중 하나다. 안정적인 밸런스와 함께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동국대 내야를 책임지고 있는 강민국(176

cm)은 우투우타로 수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다. 광주일고 시절에도 청소년 대표로도 활약할 만큼 안정적인 수비와 센스를 자랑했다. 타격과 파워가 아쉬움이었지만 지난 4월 열린 춘계리그 준결승에서 만루포를 쏘아올리는 등 화려한 타격으로 동국대의 우승을 이끌며 눈길을 끌었다.

투수와 야수로 포지션이 다른데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다른 만큼 KIA 내부에서는 '허약한 불펜을 위해 신체조건이 좋고 잠재력이 많은 투수를 선택하자'라는 의견과 '김선빈·안치홍의 키스톤 콤비와 홍재호·윤완주 등이 군미필인만큼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대졸야수를 선택하자'라는 의견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지명 날짜가 다가오면서 KIA는 최후의 1인에 대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지명으로 '아기 호랑이'가 될 주인공은 오는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5시간15분 혈투 선감독 "정규이닝은 두산, 연장은 KIA가 이겼죠"

### ① 덕아웃 말말말

▲쉬라고 하는데 다 나와있어. 불안하냐?

=정화열 배터리 코치, 특타를 하고 있는 박기남을 향해. 전날 경기가 늦게 끝난 만큼 쉬엄쉬엄 훈련을 하라고 했는데도 선수들이 일찍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며.

▲내가 영어하고 있나? =덕아웃에서 얘기를 하던 나지완, 상대가 박지훈의 이름을 못 알아듣자.

▲속상해서 짐을 못 찾았어? =26일 경기에서 결정적인 도루 저지를 했던 포수 이상우, 어깨 통증으로 엔트리가 말소됐다며.

▲내려왔어? =26일 9회 무사 1·2루의 위

기를 무실점으로 막은 박지훈, 마음을 비우고 경기를 하고 있다면서.

▲하긴 내 마음에 들려면. 하나도 없겠네 = 박지훈이 좋아진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선동열 감독, 초반에 비해 좋아지지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눈에 보인다고.

▲정규이닝은 두산이, 연장은 KIA가 이기는 경기였지 = 선동열 감독, 두산과 5시간15분의 무승부를 기록한 26일 경기에 대해 얘기하면서. 두산은 8·9회 무사 1·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KIA는 11회 만루에서 접수를 내지 못하면서 양팀은 12회 연장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어제라면 일찍 왔을 텐데 = 선동열 감독, 텅 빈 원정 덕아웃을 보면서, 26일 일찍 경기

장에 나왔던 두산은 27일에는 전날보다 30분 이상 늦게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떻게 봐요 = 두산 김현수, 연장 승부 때문에 친구 한기주와의 저녁 약속이 취소됐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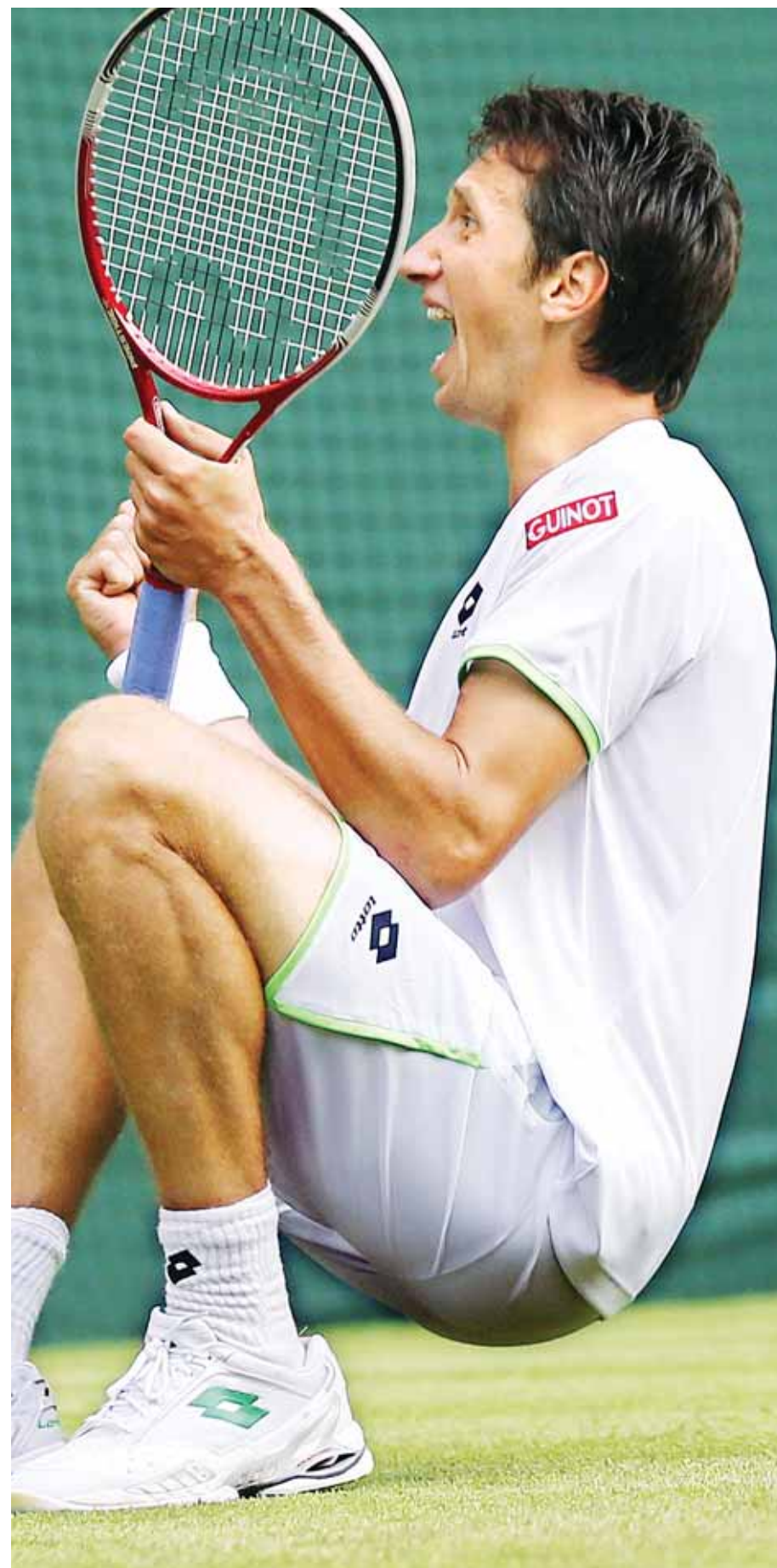
▲공 3개 이상 보면 혼났었지 = 5시간 넘게 중계를 한 양상문 해설위원, 선수시절 얘기를 하면서.

▲방망이 들고 오는 게 무겁다 = 훈련을 위해 덕아웃에 나오던 이범호가 나지완을 보고. 전날 중요한 찬스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해 폼과 마음이 무겁다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 27일 선발을 위해 선수단에 앞서 대구로 이동한 양현종, 덕아웃에 들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승자들의 환호



미셸 라체르 데 브리토(포르투갈·왼쪽)와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우크라이나)가 26일(현지시간) 영국 워블던 테니스대회 단식2회전에서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와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각각 꺾은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김태균 '핀수영' 월드컵 금 도전

### 내달 콜롬비아 대회 출전

광주시체육회 김태균(27)이 핀(fin) 수영 월드컵에 출전해 금빛 물살을 가른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2013년 월드컵에 출전할 남녀선수 10명을 확정했다.

남자부에는 김태균(광주시체육회)을 비롯해 이관호(강릉시청)·이동진(동서울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유경현(충남체육회)·장형호(경남체육회), 여자부에는 전아람·김가인·김보경(이상 경북도청), 장예슬(부산시체육회), 최재림(수원시청)이 선발됐다.

김태균은 무호흡 잠영(immersion) 5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태균은 지난해 8월 대구체고 수영장에서 열린 제24회 중별 선수권대회 잠영 100m에서 32초32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또 지난 5월 2013 인석배 겸 제25회 전국 중별 핀(fin)수영 선수권대회 무호흡 잠영 50m와 3월 호흡잠영(스쿠버 잠영) 100m에

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핀수영 세부종목은 남녀부 잠영 50m, 표면 100m, 200m, 400m와 단체전인 계영 400m로 구성됐다.

김태균은 "무호흡 잠영 50m 세계기록(13초98)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월드게임은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종목의 선수들이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집결해 기량을 겨루는 국제 종합대회다.

한편 '핀수영'은 돌고래 꼬리(모노핀)나 오리발(짝핀) 같은 지느러미를 발에 신고 물 표면이나 수중에서 헤엄쳐 누가 빠르면 누가 승리한다. 표면 종목은 스노클링, 호흡 잠영은 공기탱크를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선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이변의 워블던

### 나달이어 페더러·샤라포바 탈락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와 '러시아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3위·러시아)가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워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2256만 파운드) 남녀 단식 2회전에서 탈락했다.

페더러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워블던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단식 2회전에서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116위·우크라이나)에게 1-3으로 졌다. 이 대회 통산 8번째 우승을 노린 페더러(32)가 메이저 대회 단식 2회전에서 탈락한 것은 2003년 프랑스오픈 1회전 탈락 이후 10년만이다.

페더러를 잡는 이변을 일으킨 스타코프스키는 1986년생으로 2010년에 세계 랭킹 31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투어대회 단식 우승 경력은 4회다.

여자단식에서도 이변이 나왔다. 샤라포바가 미셸 라체르 데 브리토(131위·포르투갈)에게 0-2로 패했다. 2번 코트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샤라포바는 잔디에서 몇 차례 미끄러지더니 2세트 도중 메디컬 타임을 요청해 치료를 받는 등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

샤라포바는 2세트 게임스코어 2-3으로 뒤진 상황에서 메디컬 타임을 쓴 뒤 심판에게 잔디 상태에 대해 불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잔디 코트에서 경기하면서 세 번이나 미끄러진 적이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자책했다. /연합뉴스